

산사의 하루 나무에 새기니 ‘無’가 되었네

현찬 스님 서각전 9월 28일~10월 7일 나무 갤러리서



경북 영덕 옥천사에서 수행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현찬 스님. 스님 옆, 밑 빨간 향아리를 화분으로 탄생시킨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의 주제는 ‘산중일기’다. 경북 영덕군 달산면의 옥천사를 지키고 있는 스님은 산중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일기처럼 작품에 새겨 넣었다.

승가대 재학시절 교내에서 몇 번의 전시를 가지기도 했지만 스님은 주지소임을 맡으면서부터는 작품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중에게 오래만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가 스님에게는 특별한 수밖에 없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옥천사 주지를 살면서 10년 정도 유치원을 운영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시골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경영이 여의치 않았어요. 2년전 유치원 문을 닫게 되었고 제 시간이 생겼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 재주는 없는데 손재주가 좀 있어요. 사물을 보면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느낌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스님은 오랜만에 여는 전시이기도 해 많이 떨린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글자를 새겨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틀

틀이 취미로 전각을 해왔지만 전시를 위해 오롯이 작품을 만든 것은 너무 오랜만이에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스님의 목소리는 수줍었다. 이번 전시 작품에는 지난 12년간 수행하며 틈틈이 전각을 새겨온 스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화려한듯하면서도 소박하고, 세련된듯하면서도 수줍은듯한 글씨들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안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돌 나무 스티로폼 등 재료에 부처님 말씀 추상문자 완성 경계 넘어선 자유로운 표현

스님의 소재는 자유롭다. 나무뿔박, 돌,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 내니 스님의 작품에는 경계가 없다. 그 중에서도 ‘무’는 나무뿔박 뒷면에 글씨를 새겨 넣어 눈길을 끈다.

“괄동품상에 갔더니 주인이 뿔박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여기에 글자를 새겨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무의 선질감을 살려 글자 모양 자체를 자유롭게 표현했었어요. 틀에 박힌 형식은 탈피하

고 문자추상화를 새겼죠. 저는 스님이나 경계가 없잖아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선, 요산요수 등도 뿔박을 활용해 완성한 작품으로 산속에서 고요히 수행하는 스님의 삶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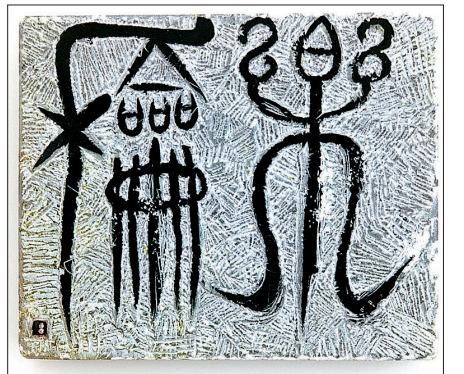
금강경의 ‘법회인유분’도 주목할만하다. 나무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금강경의 구절과 함께 부처님의 모습을 새겨넣었다. 여기에 분체를 활용해 고분의 비석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했다. “제 전시를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부처님의 뜻을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가을에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따뜻한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좋은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옥천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스님 옆에는 깨진 향아리가 근사한 화분 조형물로 놓여 있다. 빨간색 돌을 스님이 화분으로 다시 만들어냈다고 한다. 상의 경계에서 자유로운 스님의 손길이 향아리에 새 삶을 부여해 낸 것이다. 이와 같이 스님의 작품은 늘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스님의 자유로운 손길은 부처님의 뜻을 새겨 넣어 한 발 한 발 대중 가까스로 다가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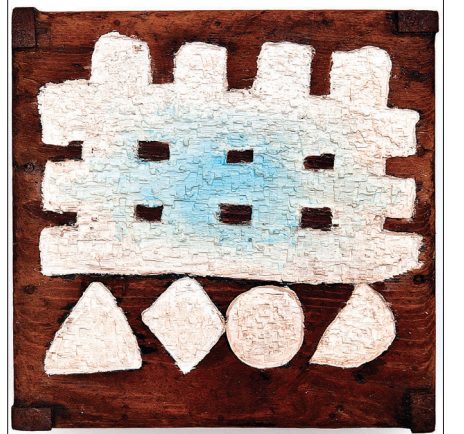


금강경 ‘법회인유분’ 분체로 고분의 느낌을 표현해냈다.

한편, 현찬 스님은 1987년 영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1996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7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현재 옥천사 주지, 영덕경찰서 경승으로 활동하고 있다. (010)3531-938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화락’ 틀에 화평하고 즐거움을 틀에 새겼다.



‘무’ 나무뿔박에 글씨를 새겨 소박함을 더한다.

르네상스 명작 고려불화를 만나다

정해진 작가 ‘호피명작’ 전 10월 2일~11월 30일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화임을 알리는 장면을 그려낸 명작이다. 이 작품을 고려불화의 기법을 응용해 그려낸 ‘마리아와 동자’는 동자승이 마리아에게 화임을 알리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정해진 작가는 비단 채색의 고려불화 기법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명작을 그만의 시선으로 재탄생시킨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는 분명 조개껍질에서 비너스가 탄생하지만 이 작품은 연꽃에서 피어나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수태고지’에서 모티브를 딴 ‘마리아와 동자’, ‘팔라스와 켈타우로스’를 모티브로 한 ‘평화의 여신’에서는 관음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서양화의 여신들에게도 담겨있다

서양 명작 모티브로 수월관음 진채기법 응용한 작품 눈길

고 생각했어요. 평화의 여신은 정병을 든 모습으로 또 마리아는 법을 구하는 동자승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진채기법을 응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만의 미술 세계를 만들어온 정 작가는 앞으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통해 그만의 창작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비단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진채기법은 작가들이 꺼리는 작업이



정해진의 ‘마리아와 동자’

기도 합니다. 이런 기법을 서양화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었으니 앞으로 좀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해진 작가는 동국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동국대, 한성대, 서울ESMOD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동서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31)949-0269 정혜숙 기자

오색 빛깔 담아 ‘마음의 여행’ 떠나요

홍미림 초대전 9월 30일부터 세종갤러리서

바쁜 삶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더 충만해질 것이다. 마음으로의 여행을 작품에 담은 홍미림 작가의 전시가 9월 30일~10월 12일 세종호텔 세종갤러리에서 열린다.

홍 작가는 동양화의 전통채색과 먹(墨)의 혼용을 통해 중후하면서 아름다운 색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생각의 나무, 연꽃, 끈, 시계, 희망의 결정체, 복주머니 등 다양한 형상을 등장시켜 마음속으로 꿈꾸는 이야기나 진리를 말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 슬픔, 화 등 다양한 마

음의 감정 상태도 그려내고 있다.

특히 화면에서 먹으로 표현된 나무와 복주머니 등은 작가가 생각하는 진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주변에 다채로운 색상으로 표현된 형상들과 대조를 이룬다. 즉 먹으로 표현된 부분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에 반해 다채로운 색상의 물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느끼는 것들을 자유로운 형상과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 외에도 과거 연(蓮)의 상징성을 주제



홍미림의 ‘꿈의 세계’ 한지에 먹과 채색으로 현실의 세계와 진리를 표현했다.

로 표현한 연꽃 작품도 여러 점 선보인다. 화려한 색채의 향연과 함께 마음 여행으로 행복의 길을 찾고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3705-9021 정혜숙 기자

고판화박물관 ‘전통 판화 공모전’

일반인 참여 가능...11월 3일~8일 접수

강원 원주시 치악산 명주사의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화)이 제2회 전통 판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전통 판화술을 부흥하고자 마련된 전통판화공모전은 올해 창작판화와 생활판화 분야를 신설해 대중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따

라서 판화작가는 물론 일반인도 참여가능하며 접수마감은 11월 3일~8일이다. 대상은 문화재청장상과 상금, 최우수상은 강원도지사상과 상금, 우수상은 원주시장상과 상금, 특별상 수상자는 박물관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한선화 관장은 “참가 분

아를 확대한 만큼 많은 대중이 참여했으면 한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해인사 대장경 번상도를 제작한 선조의 영광을 재현해 판화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선정된 작품들은 고판화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연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판화박물관 홈페이지(www.goaphwa.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033)761-7885 정혜숙 기자



국제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땀땀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깨(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는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 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풀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총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지명, 휴암, 종암, 금산, 여승,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